



전국에서 모인 도시민들이 순창의 전통 맛과 이를 활용한 문화체험에 흠뻑 빠졌다.

순창 전통장 문화체험 '호응'

한복입고 사진 찍기 · 청국장 · 된장 이용한 저녁 상차림 체험 등

전국에서 모인 도시민들이 순창의 전통 맛과 이를 활용한 문화체험에 흠뻑 빠졌다.

군은 지난 25일 고추장민속마을에서 도시민과 전통 장 기능인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담기 행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장담기 행사는 참여자들이 장을 담고 이를 숙성해 보내주는 기존 행사를 탈피하고 다양한 가족 놀이문화를 접목해 순창의 대표 문화콘텐츠로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는데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장담기 행사에서 진행된

가족 문화프로그램은 한복입고 고추장민속마을을 거닐며 사진 찍기, 청국장 된장을 이용한 저녁상차림 체험, 이야기가 있는 발효소스 토글 체험 등이다.

한복 행사는 아이들이 우리 고유의 발효 음식인 전통장을 한복을 입고 만드는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물론 한옥과 장독대가 즐비한 고추장민속마을에서 사진을 찍어 추억을 남기는데 큰 도움을 줬다.

또 전통 청국장 된장을 이용해 가족들이 직접 밥을 짓고 먹는 시간도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전문 해설사가 참여한 발효소스 토글 체험 행사도 순창민의 독특한 장(醬)문화와 산업관광, 우리 민족의 자산인 발효에 대해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는 평이다.

군은 이번 장 담그기 행사가 전통문화와 결합된 독특한 행사로 성공 가능성을 열었다고 판단하고 순창의 대표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4월 부터 서울소재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전통장문화학교' 프로그램에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전면 도입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똑똑한 검침·건강한 수도를 공급'을 목표로 다양한 상수도 시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고창읍 교촌과 호암마을 가구(100세대)를 대상으로 원격검침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데이터 전송률, 옥내누수 조기발견 및 조치사항 검증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 원격검침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상수도 원격검침은 전자장비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사용량 데이터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실시간 사용량을 체크해 누수기구를 파악해 수용가에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누수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누수를 낮추고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물사랑 안심지원단'을 구성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많아 직접 확인이 어려운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누수 의심 민원접수 시 현장에 즉시 나가 계량기 점검 등 옥내 누수 여부 확인 및 조치할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상수도 누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더불어 상수도 체납사용료 특별징수반을 지속 운영하여 2억8000만원의 체납사용료징수 및 200건의 계량기를 영치했으며 미사용 수도관 누수예방을 위해 영치한 계량기는 수용가 안내문 발송 및 공고절차를 통하여 직권폐전 일제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유등면 외이리 마을 숲 복원

순창군이 올해 유등면 외이리 마을 숲 복원을 추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나선다.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마을 숲을 복원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변 경관과 연계해 산림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유등면 외이리 마을 숲을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유등면 외이리 마을숲 복원사업 주 내용은 고사지 제거, 수간 부패부위 외과수술, 나무뿌리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양개량, 주변 오래되고 노후화된 시설물 철거 등 훼손된 느티나무가 제 모습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화목류 등을 추가 식재해 주변경관 등 주민들의 쉼터, 관광객 유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소규모 재해예방사업비 12억원 투입

임실군이 일상생활 속에 발생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에 팔을 걷고 나선다.

27일 임실군은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재해 위험지역을 미리 점검해 예방할 수 있는 소규모재해예방사업비로 군비 12억원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중 실시계획을 완료한 후 공사에 착수, 우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범람할 수 있는 소하천과 지역 곳곳에 내재돼 있는 재해위험시설을 미리 정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은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나 담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소소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피부에 외당은 체감할 수 없는 사설보수와 보강 작업을 해주는 것이다.

임실군은 재난 수준의 큰 규모의 재해예방사업은 물론 이처럼 생활속 재해사업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15억원에 60건의 재해보수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작년에는 17억원에 80건 등 올해까지 약 50여 억원을 투입해 200여건의 재해관련 예방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차질없이 신속하게 사업 추진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기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외당은 예방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중국내 AI 환자 급증 감염 주의 당부

남원시보건소(소장 최대성)는 현재 중국에서 H7N9형*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 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16년 10월 이후 총 429명(치명률 34.7%)이 발생하였고,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 수(121명)의 3배를 넘어섰고 있어 중국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중국내에서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염지역을 지정하고,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서문을 검역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700만원의 과태

료 처분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남원시보건소에서는 중국으로 여행하는 국민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 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방문하여 건강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언제든 환자가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AI(H7N9) 인체감염 의심환자를 조기에 인지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적극적인 신고를 안내 등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이질수 고창부군수, 보건기관 현장행정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군정 주요사업의 활기찬 추진을 위한 소통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질수 부군수는 제일선에서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대민행정을 펼치는 관내 보건기관 36개소(보건소, 보건지소12, 보건진료소23)에 대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 부군수는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수면 보건지소, 내창보건진료소를 비롯한 관내 보건기관을 찾아 행정 최일선에 서서 봉사하는 보건기관 관계자들을 방문·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고창군과의 소통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부군수는 "현장방문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을 적극 검토해 안전한 보건기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홍보 블로그 기자단 모집

순창군이 2017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강천산과 축제 등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을 SNS에 홍보할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3월 17일 까지이며 군에 거주하며 순창군 홍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블로그 기자단은 심사를 거쳐 7명 내외를 선발하며 3월부터 12월까지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취재해 군의 대표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하면 된다. 군은 취재활동비로 1회당 5만원을 지급하며 월 1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고령·영세농 농기계작업단 가동

파종기·경운기 등 3~4종 임대 농기계 지원·운영

임실군이 올해 처음으로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을 본격 가동한다.

농기계작업단은 농기계 사용이 어렵고 운반차량이 없는 소규모 고령·영세농에게 작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국가공모 사업이다.

27일 임실군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지원사업에서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 운영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국가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임실군이 주관하고 순창군과 남원시가 참여해 이뤄낸 3개 지자체의 합작품이다.

사업비는 3년간 총 30억 원이며, 농기계작업단 업무는 물론 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농기계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의 예방교육,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농기계작업단은 농기계사용법을 모르거나 이동상의 어려움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 할 수 없는 소규모 고령 농가와 영세한 농가에게 귀농·귀촌인이나 농촌의 젊은 인력과 연계시키는 역할을 대행한다.

이에 따라 군은 이 사업이 추진되면 그동안 농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귀촌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은 이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가장 먼저 파종기와 보행관리기, 경운기 등 3~4종의 임대 농기계를 먼저 구입해 고령·영세농에게 지원·운영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